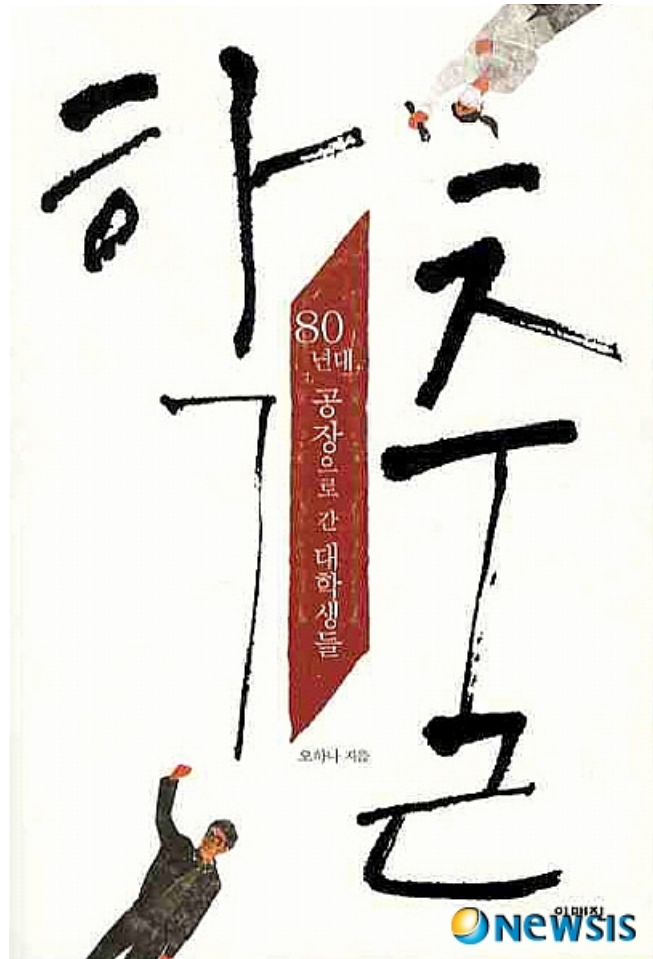


## 그때 그들은 스스로 '학출'이 됐다

등록 2010.05.04 14:53:04 | 수정 2017.01.11 11:47:28



【서울=뉴스시스】김혜선 인턴기자 = 1980~90년대 대학생에게 '학출'이란 단어는 그리 낯설지 않다.

80년대는 대학 졸업장이 미래를 일정부분 보장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수많은 대학생이 그 안락함을 내팽개치고 은밀히 공장행을 택했다. 이렇게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학생 출신 노동자' 학출이라 불렀다.

그 무렵 대학생들을 이끈 동력은 사회의 모순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큰 양심의 가책과 시대 의식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였다.

하지만 학출의 기억은 이제 당사자들조차 더는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노동운동 진영과 무한경쟁 사회 양쪽 모두에게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출 생성 요인에서 그들의 고민들까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준다. 학출과 80년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또 '88만원 세대'로 통하는 20대들에게는 스스로 사회의 소외자가 된 이들이 불과 10여년 전까지 있었음을 보여준다. '행동하

는 지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토록 한다. 오하나 지음, 246쪽, 1만3000원, 이매진

end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